

#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고은 강은교 나희덕 임동화 객재구

## 고은 시인 등 69명 ‘세월호 추모 시집’ 펴내

### 수익금 ‘기억 0416 캠페인’ 기부

‘아이들은 수학여행 중이었다/ 교실에서처럼 선실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 그 말에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앉아 있었다/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나사들처럼 부품들처럼/ 주황색 구명복을 서로 입혀주며 기다렸다/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공장의 유니폼이라는 것도 모르고/ 물로 된 갑옷에서 입게 될 수의라는 것도 모르고/ 아이들은 끝까지 어른들의 말을 기다렸다(나희덕의 ‘난파된 교실’ 중)

지난 5월 7일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포엠 콘서트’에 참석했던 나희덕(조선대 문장과 교수) 시인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미완성 시를 낭송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얼마 후였다. 시인은 도무지 시를 쓸 수 없었으나, 시를 썼다고 했다. 시인의 낭송이 끝나고 잠시 객석엔 침묵이 흘렀다. 그 때 낭송했던 미완성의 시는 ‘난파된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발간된 세월호 추모 시집에 실렸다.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날을 기억하고, 떠난 이들을 가슴에 새기며 69명의 시인들은 시를 썼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집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실천문학사)가 나왔다.

고은, 강은교 나희덕, 도종환, 송경동, 신현림, 함민복, 허수경, 백무산 등 한국의 시단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참여했다. 지역 시인들도 동참했다. 김준태 시인의 ‘다시라기’, 임동화 시인의 ‘진혼의 노래’, 객재구 시인의 ‘반도의 자화상’, 이은봉 시인의 ‘세월’ 등이 실렸다.

시인들은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다짐한다. 강은교는 ‘어른들은 나를 두고 가버렸어요/ 이제 나는 떠나가요/ 나는 지금 어둠 속에 눈 꼭 감고 있어요/ 파도에 결박되어(‘땀의 편지’) 떠나버린 이를 기억한다.

이안은 ‘어떻게 네가 없을 수 있지?/ 열일곱 살 네 생일에/ 어떻게 네가 없을 수 있지?/ 우리는 네가 없는 네 생일에/ 빛이 꺼진 눈으로/ 열일곱 개 촛불을 켜다/ 생일 축하해/ 사랑해/ 없는 너에게/ 살아 있는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네 생일에 바친다’) 중)고 안타까움을 전한다.



쏟아져 들어오는 캄캄한 물을 떨어냈을  
가녀린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세상을 안심시켜 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사일  
<함민복 ‘숨쉬기도 미안한 4월’ 중>

표제작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를 쓴 송경동은 ‘돌려 말하지 마라/ 온 사회가 세월호였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자본과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행수를 떨어냈다’고 일갈한다.

객재구는 ‘슬픈 눈동자의 개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끝없이 반도의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 흰 국화꽃 한 송이를 들었다고 해서/ 갈 곳 없는 노란 종이배를 하나 접었다고 해서/ 우리가 개가 아닌 것은 아니다(‘반도의 자화상’) 중’며 통렬히 비판한다.

시인들의 인쇄 전액과 출판사 수익금의 10%는 아름다운재단 ‘기억 0416 캠페인’에 기부된다. ‘기억 0416 캠페인’은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기록을 위한 시민이카비브 구축 지원, 지역 사회복지사의 유가족 방문 활동 지원, 안전지역 시민복지단체의 장기 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영호남 독립운동가 삶과 활동 패널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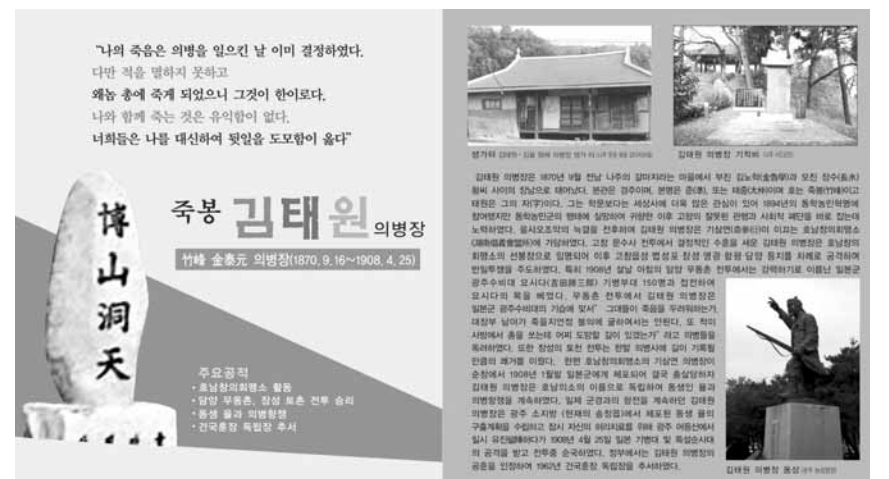
백범재단, 광복 69주년 맞아  
광주, 학생문화회관 29~8월 3일  
전남, 곡성·무안 8월 5~19일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이사장 안종일)이 제69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8월19일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잇달아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영호남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활동이 패널로 전시된다.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의병장 고헌순·김태원·김원국·김원범, 심남일·양한목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한 장석천 등 호남지역 인물과 의병장 노병대, 초대 국무령 이상룡, 서로군정서 김동삼, 민족유일당 현정건, 저항시인 이육사 등 영남지역 인물이다.

또 일본, 영국, 미국 등 19세기 제국주



구한말 나주·담양 등에서 활동한 죽봉 김태원 의병장.

의 국가가 약소국을 침탈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린 만화와 삽화도 패널로 전시된다. 광주전시는 29일부터 8월3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

리고 이어 곡성(8월5~11일·곡성문화센터 전시실), 무안(8월13~19일·전남도립도서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233-247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청년문화허브 무한 ‘탱자 하우스’ 오픈

청년들 위한 열린 문화공간  
문화 살롱·아지트 역할

청년문화허브 무한(대표 정두용)이 20대 청년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탱자 하우스(사진)’를 오픈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수아파트 인근에 만들어진 탱자 하우스는 문화 살롱, 문화 아지트, 문화의 집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30대 문화기획자들이 마련한 기금과 물품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청년들이 ‘유유자적’, ‘탱자탱자’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탱자 하우스’라고 이름 지었다.

공간은 대학교 동아리방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방 2개와 테이블이 놓인 거실 1개로 이뤄져 있다. 특히 친구들과의 스터디 공간, 악기 연습 공간, 영화 상영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



고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온 친구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주는 ‘카우치 서핑’(Couch Surfing)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기도 한다.

탱자 하우스는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청년 및 기획자들에게 개방돼 있다. 비회원에게는 대관료 1만원을 받는다.

2013년 2월에 만들어진 청년문화허브 무한은 축제, 공연, 전시, 여행,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를 즐기는 20대들이 모여 자유롭게 교류하고, 또 문화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허브 역할을 하는 문화기획 단체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유유자적 문화토크’를 비롯해 ‘구석구석 광주여행’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문의 010-9080-906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발행 ‘창’ 29호 나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담론 계간지 ‘창’ 29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기획으로 ‘민선 6기 문화정책 길을 본다’를 주제로 류재한 전남대 교수의 ‘민선 6기에 바라는 문화정책 제안’을 필두로 김기근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사람중심의 가치, 문화복지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경운

아시아문화개발원 사무국장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란 멋진 명서’, 윤현석(주)컬처네트워크 대표의 ‘민선 6기 시대를 맞이한 청년문화발전 위한 제안’ 등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최근 미술평론집 ‘소통의 비밀’을 출간한 장석원 전남대 교수 가 미술비평을 통해 광주에 던지는 메아



리를 각각 김경희 시인과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이어 문화현장 코너에서는 서용조 소설가가 ‘16회 영·호남문화인교류 한마당’ 현장의 이야기와 광주여성재단의 광주여성공간소토리텔링기획전 ‘남은 서랍 속 스케치’ 대해 소개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정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천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양덕유 제관

명품 가든/명품주택 급처분

평안한 노후  
안정적인 수입  
두 마리 토끼 잡을수있는  
명품 다이어 몬드 전원 가든과  
주택을 안내합니다

- 전남 영암 13번국도 ㄷ자코너
- 대지 1,053㎡
- 가든1층 133㎡
- 주택1층 80㎡
- 노래방 50㎡

2009.6월에 활동적벽돌 9만매를  
특수 주문제작하여직접 시공했습니다  
4개월 냉난방없이 평균20도를  
유지하는 [명품 가든과 주택]입니다

월출산 방법 최고 요충지로서 가든 영업또한  
1일100만원-200만원을 유지하고있는  
특급상권입니다

급처분 가격은  
원가수준인 4억4,700만원입니다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의/전화  
010-2804-0632

### 경매

영광군 군서면 관곡리  
군서동공단지인근,도로접  
정남향,전원주택건축가능  
전 1,613㎡  
최저가 1,100만원

신안 중도면  
대지 4,858㎡  
엘도리도500m거리  
편선부지,계획관리지역  
최저가 3억994만원

화순 도곡면 도곡원천영  
3.4층 무인숙박시설  
대지 2,057㎡  
건물 2,332㎡,  
주변개발호제있음  
북측형,실내 고급인테리어  
감정가 24억9천만원  
최저가 17억4천만원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주원  
010-7171-7610